

80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시대를 초월한 나라사랑 이야기

2025년 8월 15일 ~ 11월 17일
광복절부터 순국선열의 날까지



스탬프북
신청하기



기념품
신청하기



현충시설
확인하기

www.815-1117.kr
스탬프북 신청 오픈 2025년 8월 15일



국가보훈부

리:스펙 제대군인

2025 October Vol.236

리:스펙 제대군인

2025 October Vol.236

Re play

여성 최초 야전 주임원사에서
도시철도 보안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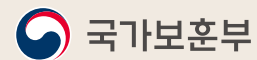
Re connect

2026년 고용 안전망,
임금과 실업급여가 바뀐다

Re new

A.I의 시대 자기다움 찾기
- 오리지널리티

정남숙
예비역 육군 원사



국가보훈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보훈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October Vol.236



10



06



34

10

Re play

- 04 **리마인드**
나에게 비움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 책임지는 무기·탄약 제조기업
(주)우리(WOOREE)
- 10 **인사이드 스토리**
여성 최초 야전 주임원사에서 도시철도 보안관까지
정남숙 예비역 육군 원사
- 14 **위대한 전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이치호 예비역 육군 소령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2026년 고용 안전망, 임금과 실업급여가 바뀐다
- 20 **스페셜 리스트**
MICE 산업, 국제회의가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MICE 산업의 세계
- 24 **금빛 상담소**
연령대별로 챙겨야 할 경제교육 포인트
성유미 온 가족 경제교육 커뮤니티 '깨비드림' 대표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한글날 제정
- 28 **미디어 로그**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들, 웹툰 작가의 세계
드라마 <오늘의 웹툰>과 영화 <히트맨> 속 '웹툰 작가'

Re new

- 32 **전문가 칼럼**
AI의 시대 자기다움 찾기 - 오리지널리티
이임복
- 34 **뜻있는 여정**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천년 고도를 걷다
경북 경주
- 38 **센터는 지금**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풍성한 수확의 계절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책

통권 236호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권오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비움은 []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소유, 정보, 감정까지...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마음을 채우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종이 위의 여백처럼,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물어보세요.
“나에게 비움은 무엇일까?”
휴식일 수도, 용기일 수도, 혹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10월이 비움 속에서 더욱 단단히 빛나길 바랍니다.

“놓아버림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마음속에서 여전히 분노, 불안,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틱낫한 스님

국방을 튼튼히 책임지는 무기·탄약 제조기업 (주)우리(WOOREE)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프레스 장비를 이용한 부품 생산으로 시작해 연 매출 3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우리. 1986년 설립 이후 39년간 신관 부품과 조명탄, 자탄몸체 등 핵심 군수 부품 생산을 담당하며 방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제대군인 10여명과 함께 기술력과 인재를 동시에 키워온 기업은 경기 화성시 대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측정기 7대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생산 역량을 자랑한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함께 사람 중심 경영도 돋보인다. 현재 임직원 중 10여 명이 예비역 간부 출신이고, 특례보충역 등 젊은 인재도 함께하며 세대가 어우러진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 회사는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며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해 왔고, 2024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가보훈부장관 인증과 국방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함께 성장해 온 39년의 발자취

㈜우리는 1986년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에서 프레스 장비를 이용한 부품 생산으로 출발했다. 한화에 부품을 납품하며 기반을 다진 후 광명시와 군포시를 거쳐 2002년 화성시에 터를 잡았다. 현재 직원 115명이 함께 일하며, 최신 가공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지만, 숙련 기술자의 가치를 존중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지닌 직원들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서 활약하는 사례가 있다.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는 문화가 곧 ㈜우리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연 매출 약 300억 원을 달성하며,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 담긴 혁신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정밀 가공과 사람 중심의 경쟁력

㈜우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케이디솔루션 등 방산업체의 1차 협력사로서, CNC·MCT·복합기를 활용한 선삭·가공과 프레스 장비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기업이다. 외주 공정 없이 자체 생산이 가능해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정밀 검사용 3차원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심재섭
대표이사

“제대군인은 회사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육군 병사로 복무하며 월남전에 참전했고, 전역 후에는 방위사업청(옛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약 30여 년간 현역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제대군인들은 책임감, 추진력, 충성심이 남달리 강했고, 업무 능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회사가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인재가 있는 만큼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근무 중인 제대군인들은 모두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인력 채용 시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제대군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해 화성시 제1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백나무 휴양림 조성과 같은 복지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직원 모두가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과 복지 투자

임직원 복지를 위한 기반도 ㈜우리의 큰 자랑이다. 최신식 기숙사와 다양한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어 직원들은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사내에는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실(헬스·탁구·당구), 도서실, 노래방이 갖춰져 있으며, 공장 내부에는 집진 시설이 완비돼 쾌적한 근무 환경이 유지된다. 또한 3억 원 규모의 사후회 기금을 조성해 장학금, 경조사비, 저금리 대출 제도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사람을 중시하는 이러한 투자가 곧 조직력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제1 강소기업을 향한 도약

“할 수 있다. 안 될 게 뭐냐”라는 구호 아래 작은 부품 하나에도 국가 안보가 달려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우리. 동시에 “더불어 살자”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지역사회, 제대군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심재섭 대표이사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누구보다 깊은 애국심과 사명감을 품고 있다. 그의 철학은 곧 기업의 정신이 되어, 방위산업 전문기업에서 화성을 대표하는 제1 강소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다. 🇦🇷

“군에서 다진 기획력과 분석력, 지금도 빛을 발합니다”

철도청 9급 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한 뒤 송실대 법대에 입학해 ROTC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전방 사단, 군단, 군사령부, 육군본부에서 군사경찰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군 복무 29년과 공무원 5년을 합쳐 34년간 공직에 몸담았으며, 삼일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전역 후 심재섭 대표이사님의 제안으로 ㈜우리 관리부 부사장으로 합류해 올해로 13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노무·인사·재정 관리 등 전반을 맡고 있으며, 군에서 익힌 기획력과 분석력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신뢰와 태도를 통해 기회를 얻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인연으로 입사했고, 지금은 후배 예비역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복지를 살피며, ㈜우리가 오래가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송용호
관리부 부사장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 정신으로 임합니다”

해병대 보병으로 해병1사단, 해병6여단, 해병9여단에서 복무하며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키웠습니다. 그 경험이 전역 후 ㈜우리와 인연을 맺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제대군인지원센터와 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2024년 2월 입사해 현재 인사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 보건, 노무, 인사, 재정 등 전반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군에서 다진 실무 경험과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은 회사 구호인 “할 수 있다. 안 될 게 뭐냐”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시 꾸준한 준비와 성실한 태도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취득과 전직 기간을 활용한 계획적 준비, 그리고 보훈부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얻은 정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정영빈
관리부 인사총무과장

“군에서 다진 준비성과 경험, 품질 관리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육군 병기 병과 장교로 약 28년간 복무하며 장비와 탄약의 정비·보급, 참모와 지휘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정년보다 5년 일찍 명예 전역을 선택했지만, 군 복무 기간 내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등 14개의 자격증을 꾸준히 취득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교육과 취업 지원 제도가 더해져 ㈜우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전역 전 기업연수 기간 품질관리 차장을 거쳐 2024년 8월 품질부 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현재는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와 고객 불만 대응, 불량률 최소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맡고 있으며, 군 시절 무기체계 정비와 보급, 전력화 사업 관리에서 쌓은 경험은 품질검사와 고객 관리, 조직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꾸준히 역량을 준비해야 하며, 저 역시 이곳을 마지막 직장이라는 각오로 회사 발전과 화성시 제1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설호
품질부 부장



정남숙
예비역 육군 원사

여성 최초 야전 주임원사에서 도시철도 보안관까지

부산 지하철 플랫폼에서 이어가는 헌신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JEONG NAM SOK

36년 7개월 동안 야전과 본부에서 수많은 장병들을 어머니처럼 품으며 책임과 헌신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온 정남숙 예비역 원사. 전역 이후에도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보안관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 군복은 벗었지만, ‘누군가를 지키다’는 사명감만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의감 넘치던 소녀, 군인의 꿈을 품다

경북 경산의 작은 농촌 마을. 다섯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정남숙 예비역 원사는 언제나 활발했다. 병정놀이와 말타기를 즐기며 늘 남자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아이였다. 부모님은 농업에 평생을 바치며 ‘정직과 성실, 그리고 베풀’을 몸소 실천하였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가르침이 소녀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청소년 시절 위문편지를 통해 상상했던 “국군 언니”라는 호칭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영화 속 당당한 여군의 모습과 6·25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직접 들려주시던 아버지의 국가관이 그를 움직였다. “나도 저런 군인이 되어야겠다.”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다. 대부분의 군가를 미리 외울 정도로 애정으로 입대를 준비한 그는 고등학교 교복을 벗자마자 1982년 3월 육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7월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타자하사관으로 첫 보직을 받았다.



36년간의 군 생활, 여성 최초 야전 주임원사로

그에게 군 생활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삶의 전부였고,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 자체였다. 군수사령부 인사계에서는 수많은 부사관들의 인사 보급·교육을 총괄하며 ‘사람을 챙기는 군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본부근무대 보안담당관 시절에는 각종 보안 점검과 감사에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이 임무를 완수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2000년, 나이 38세에 원사로 진급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그 자리에 올랐다. 탄약창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할 때는 장병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봤다. 취사장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생활관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병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덕분에 소속 중대는 각종 평가에서 늘 모범부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평가나 성과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점호에서 보이지 않던 병사를 찾았는데,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살렸죠.”

그날 이후 ‘군인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자리’라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2010년 강원도 양구 2사단 31연대 신병교육대 주임원사로 임명된 그는 신병들의 생활을 꼼꼼히 챙겼다. 훈련병들이 의무실 진료를 받을 때면 사탕과 과자를 건네며 “힘내라!” 격려했고, 수료식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온 부모님들께 “아들들이 든든한 군인으로 거듭나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며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2014년에는 31연대 주임원사로 임명되어 여성 최초로 야전 주임원사 자리에 올랐다. 그 무거운 남달랐지만, 특유의 책임감과 열정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같은 해 국군 모범용사로 선정되어 청와대에 초청받았을 때는 군 생활의 영광이 응축된 듯했다.

“여성 최초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군인이란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무엇보다도 군 생활 중 수많은 인연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수사령부에서 여군대장을 맡으셨던 조석희 중령님은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좋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든든한 멘토로 남아 계십니다.”

전역, 그리고 다시 찾아온 도전

2018년 10월, 36년 7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뿌듯함 속에서도 사회 진출의 벽은 높았다. 수십 년을 군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막막했다. 시·구청 일자리센터를 찾아다니고 채용공고를 모으는 날들이 이어졌다. 일상의 리듬을 놓치지 않으려 뒷산을 오르며 체력을 다지고 마음을 추슬렀다.

그사이에도 ‘사람을 돕는 자리’는 놓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 부산 한서병원에서 5개월간 방역 업무를 도왔고, 부산장애인복지관에서 주 1회 식당 도우미로 20차례 봉사했다. 2024년에는 삼성희망네트워크를 통해 초등 특수학생 3명을 10개월간 돌보며 ‘돌봄’의 감각을 이어갔다.



결정적 전환점은 제대군인지원센터였다. 상담사의 따뜻한 격려와 꼼꼼한 이력서 지도가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김은석 상담사의 조언은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던 중 센터를 통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보안관’ 채용 소식을 접했다. 이력서를 다시 다듬고 용기를 낸 끝에 지원했고, 최종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도시철도 보안관, 시민 결의 든든한 방패

2025년 1월부터 그는 도시철도 보안관으로 시민 결의에 서 있다. 격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서역에서 좌천역까지 14개 구간을 순회하며 이동상인 단속, 포교활동 제지, 소란행위 대응, 승객 불편사항 처리 등을 맡는다. 성추행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초동대응과 역무 지원에도 나선다.

“군에서 배운 위기 대응 능력과 책임감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힘은 군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죠.”

정년은 66세까지다. 그는 앞으로 남은 4년의 시간을 또 다른 사명처럼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쌓아가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리인 만큼, 남은 시간도 온전히 헌신으로 채워가겠다고 다짐한다.

인생 2막, 가족과 사회에 헌신하며

긴 군 생활 내내 가족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남았다. 야전과 본부를 오가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36년 7개월간의 군 생활로 직업군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누렸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아내이자 1남 1녀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사회와 후배들을 향한 헌신도 이어가고 있다. 부산재향군인회 이사, 재향군인회 중앙회 여성회 이사, 여성예비군, 방위협의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제대군인지원센터 여성 제대군인의 멘토로 나서고 있으며, 산과 길을 오가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스스로를 단련한다. 한라산·지리산 등 100대 명산 완등, 제주 올레길 437km 완주, 지리산 둘레길 2회 완주, 영남알프스 6회 완등, 각종 둘레길과 등대 투어까지 그의 발걸음은 쉼 없이 이어졌다. 현재는 운탄고도 1330, 한티가는길, 200대 명산 완등에 도전 중이다.

그는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남긴다. “전역 후에는 계급을 내려놓고 사회 초년생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준비하며, 네트워크를 넓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오늘도 시민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 두 번째 임무입니다. 군에서 배운 헌신의 정신을 지하철 플랫폼에서 다시 펼치며, 앞으로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

정남숙 예비역 육군 원사의 인생 법칙

1. 1일 1만 보 걷기

건강은 최고의 자산, 꾸준한 걸음이 삶의 기초가 된다.

2. 시간과 약속 지키기

작은 습관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인생을 세운다.

3.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배려는 곧 바른 삶, 더불어 사는 길의 첫걸음이다.

4.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진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 오스트롭스키의 소설에서 제목 차용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최우수상

나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목적지를 벗어난 적 없이, 장교로서의 삶에 누구보다 만족하며 살았다.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에도 끝이 있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발을 디뎠을 때는 높은 낭떠러지에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막막했다. 이 순간조차 분명 예정된 과정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닥뜨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 과정은 내게 분명 시련이었지만, 그 시기를 통해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다. 마치 수십 번의 담금질 끝에 완성되는 잘 버린 칼처럼.

이치호

예비역 육군 소령

내게 맞는 옷을 벗어야 했던 순간

장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나의 의지라기보단 아버지의 오랜 꿈에 가까웠다. 군인인 아버지를 보며 자라온 삶의 방식 때문인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장교 생활은 내게 무척 잘 맞는 옷과 같았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조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동료애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하는 책임감마저 좋았다. 하지만 전역을 해야만 할 때가 왔고, 나는 일찌감치 전역 후 진로를 정보 분야 경력직 군무원으로 결정했다.

일 년여가량의 시간 동안 군무원 시험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내게 찾아온 것은 보안 분야 경력직 군무원 한 명 선발이라는 공고였다. 75:1의 경쟁률, 보기 좋게 불합격하고 말았다.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된 순간이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실패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가장의 뒤통을 짚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실패에 충분히 괴로워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거듭된 실패와 단련의 나날들

나는 국회 사무처, 대법원 비상대비업무처 등 매일 나라 일터 구인란을 둘러거리며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렇게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작성하며, 단 하루도 시간을 허투루 써 본 적이 없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며 각 조직의 체계, 목표, 언론 보도와 기관장의 인사말까지 외웠다. 하지만 마치 눈앞의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매번 1차 서류전형은 통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자책했고, 거듭된 실패는 나를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었다. 땅에 떨어진 자신감을 끌어올려 줄, 좌절의 경험을 딛고 일어설 동기가 필요했다. 때마침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경비협화와 MOU를 맺고 전역 군인 대상 특수경비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팔 할은 기세’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특수경비교육은 내게 팔 할의 기세를 다시 채우는 동기였다.

나는 마치 고시라도 임하는 마음으로 2주간의 특수경비교육에 성실히 임했다. 고작 2주간의 교육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법칙을 상기시켜 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인지 교육성적 우수자로 상장까지 받으며, 자신감이 향상되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 교육을 계기로 나를 연마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소방안전관리 1급, 지게차 기능사, 워드 1급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나의 구직카드에는 자격증과 함께 자신감도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나는 자격증의 개수만큼 나의 취업 성공률이 높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청, 강원도청, 공기업 등 여러 곳에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결같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도 면접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수차례의 구직 동안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면접이었다. 번번이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나는, 누구보다 전문가의 도움

이 절실했다. 그리고 이 도움 요청에 기꺼이 응해준 분들이 바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담 상담사님이었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느 면접학원보다 더 전문적이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셨으며, 지원할 때는 응원의 말을, 실패하면 아낌없는 격려의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처음 취업을 하게 된 곳은 평택 항만청 예하 특수경비업체였다. 입·출입 통제업무를 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근무는 보통 2인 1조로 편성되는데, 나의 파트너는 팀장이었다. 그도 처음에는 비교적 친절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건의한 적 있었다. 본사에서 내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팀장은 이전과 다르게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 시에는 나를 새벽 시간에 고정 편성하고, 업무 이외의 청소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영관장교로 근무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냐는 식의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주변인들이 보는 곳에서 자신이 영관장교 출신보다 상급자라며 걸핏하면 나를 깎아내렸다.

이처럼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새롭게 시작한 두 번째 삶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운이 좋게도 또다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집에서 가까운 파주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산하의 보안팀에 취업하였고, 안정된 두 번째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첫 직장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었을까? 직장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나와 전혀 다른 삶의 이력을 가진 부서 인원들임에도 서로의 다름을 시기하는 대신 각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배려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처럼 가까워졌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전하지 않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은 나에게 또 다른 갈망을 느끼게끔 했다. 특히나 정기적으로 국가 중요시설 방호 관련 군·경 통합 훈련을 하곤 했는데, 군복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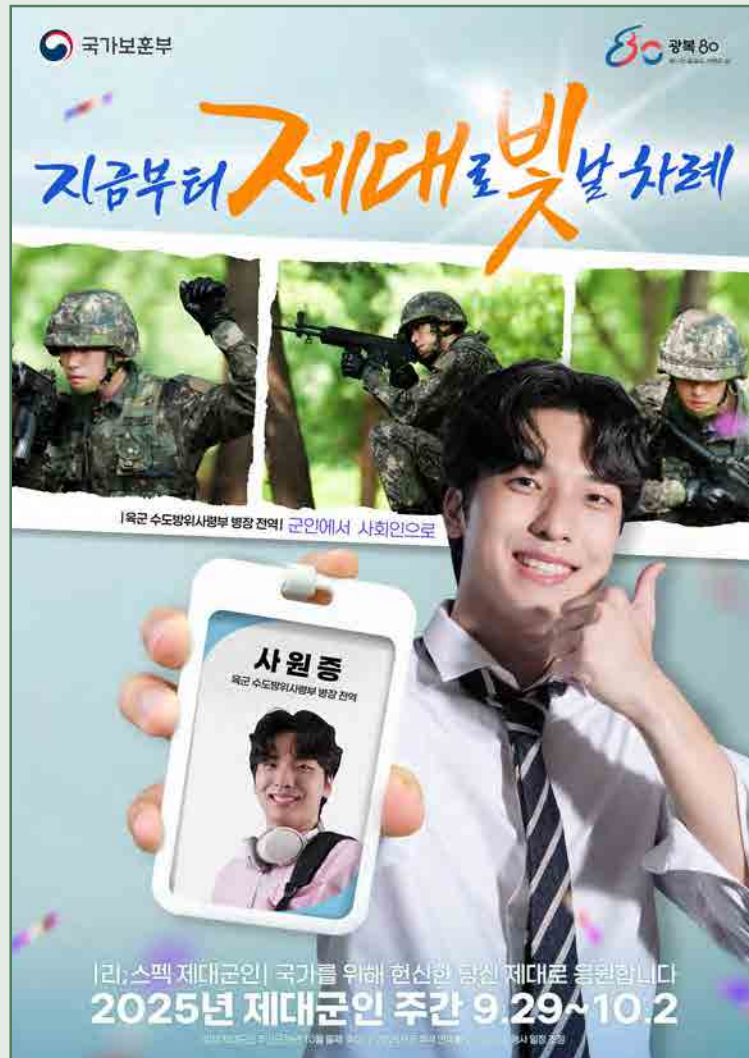
은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군복을 입고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좋은 인연들 덕분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가장 처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님이었다. 나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며,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무원에 다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서 격려해 주었다. 보안팀 동료들에게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당신은 여기서 근무할 사람이 아니라'라며 나의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응원해 주었다. 심지어 동료들은 조금이라도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거나,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어떤 날은 휴식 시간에 공부에 몰두한 나머지 교대 시간을 놓친 적이 있었다. 한참 뒤에야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 달려갔는데, 다른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었더니,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대신 근무를 서 준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동료들은 본인들이 먹으려고 사 두었던 영양제나 간식까지 챙겨주며 부담스러울 정도로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주변의 지지와 간절함은 예전보다 더 공부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다. 당시 집중하기 위해 독서실을 다녔는데, 대부분이 수험생이었다.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이어서일까? 독서실 원장님은 내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었다. 1인실에서 공부했는데, 집중이 안 되면 언제든지 개방실로 옮겨서 공부해도 좋다고 먼저 말을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커피나 간식을 챙겨 주거나, 볼 때마다 응원의 말을 해주었다. 자신은 독서실을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며, 나는 꼭 합격할 것이라고 말해준 것이다.

많은 사람의 격려와 응원을 받판 삼아 엉덩이에 진물까지 나올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다. 독서실에는 합격자의 이름을 적어놓는 게시판이 있는데, 매일 독서실을 나설 때마다 그 게시판을 보며 언젠가 내 이름 석 자를 이곳에 붙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8개월간 공부를 하여 2023년 4월 예비전력군무원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시험 합격 후에 음료를 사 들고 독서실을 다시 방



문했을 때, 게시판에 쓰여 있는 내 이름 석 자를 보고 울컥한 마음이 들고 동시에, 옆에서 제 일처럼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늘 곁에서 마음의 안식이 되어준 가족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던 제대군인지원센터, 응원과 격려로 힘을 주었던 직장 동료들과 독서실 원장님까지.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그 모든 이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힘든 시기를 나 혼자서 오롯이 견뎌낸 것 같지만,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나를 도와준 이들이 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있었기에 도전할 용기를 얻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던 것이 아닐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쁨 속에 살다

지금 나는 전남 목포에서 5급 사무관의 신분으로 훈련대 훈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시금 내게 꼭 맞는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훈련대에는 매일 200여 명의 예비군이 들어오고, 나는 그들의 예비군 훈련을 총괄하고 있다. 훈련이 시작되면 그들 앞에 서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안보 교육을 한다. 비록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

으로써 지역 내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이며,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기 마련이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만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그리고 내게는 그 위기의 순간에 가족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으며, 나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두 번째 삶을 설계하고 한 걸음씩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 있다.

어쩌면 내 주위에도 인생의 위기에 맞닥뜨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전역을 앞둔 후배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나의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 69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 안전망, 임금과 실업급여가 바뀐다

정부가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37조 6,157억 원 중 30조 9,827억 원이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기금에 투입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돼 월 환산 216만 원에 육박한다. 구직자와 직장인이 직접 체감할 '임금'과 '실업급여'의 핵심 변화를 정리했다.

37조 원 규모 고용 예산, 어디에 쓰이나

정부 예산안 기준,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37조 6,157억 원. 이 중 기금지출 30조 9,827억 원이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기금 등에 투입된다. 고용보험은 18조 4,789억 원, 이 가운데 구직급여(실업급여) 11조 5,376억 원을 편성했고, 대상자는 약 163.6만 명으로 전망된다.

2026년 고용 안전망 예산안 주요 내용

분야	20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총지출	37조 6,157억 원	2025년 대비 +6.4%
기금지출 합계	30조 9,827억 원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기금 등
고용보험	18조 4,789억 원	구직급여·모성보호 등
구직급여(실업급여)	11조 5,376억 원	약 163.6만 명 지원 전망
산재보험급여	8조 1,463억 원	산재 예방·치료·사후관리 강화
모성보호(육아 등)	4조 728억 원	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단축급여 등
임금채권기금	8,481억 원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은 215만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전년 대비 +2.9%)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급여 산정과 계약 시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최저임금

항목	2026년 적용 값	비고
시급	10,320원	2026. 1. 1.~12. 31. 적용
일급(8시간)	82,560원	시급×8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주 40시간+주휴)
인상률	2.9%	전년 대비 ▲290원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하는 구조다. 실제 지급액은 법정 상·하한선과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 요건 _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 의무 이행

수급 기간 _ 아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 지급

* 계산 예시

평균임금 250만 원 → 약 150만 원/월(60%)에서 연도별 상·하한 적용 후 확정
(개인별 근로시간·포함수당·인정일수에 따라 차이 발생)

달라지는 것들, 무엇을 의미하나

생활 안정의 바닥선 상향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보상선을 끌어올려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사업장은 2026년 급여체계를 재점검해 근로계약·연봉테이블·수당 산입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

실직 시 소득 보호 강화

평균임금 60% 원칙에 따라 구직 기간 동안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직업훈련·재취업 지원과 연계된다. 예산 확대로 경기 둔화 시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산재·임금체불 대응력 제고

산재보험급여 확대는 치료·재활·사후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채권기금 확충으로 도산·체불 발생 시 신속 대지급이 가능해진다.

돌봄·경력단절 부담 완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 증액은 돌봄기반을 넓히고 복귀경로를 넓혀 경력단절 위험을 낮춘다.

MICE 산업, 국제회의가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MICE 산업의 세계

2025년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 정상이 모이는 이 행사를 계기로 경주는 '국제회의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뒤에는 연 43조 원 경제효과와 6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 'MICE'가 있다.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MICE 산업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직업 세계를 들여다봤다.

글 편집실

하나의 회의가 만드는 '도시 혁신'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용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네 글자로 압축하기엔 너무 크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MICE 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는 43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64만 명에 달했다. 하나의 국제회의가 열리면 숙박·교통·외식·관광은 물론 통역·기획·디자인·기술 분야까지 연쇄적인 경제효과를 낳는다.

과거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부산은 '국제회의도시'로 인정받으며 해운대 일대가 급성장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설과 강남 일대 인프라 재정비를 이끌었다. 2012년 여수 엑스포는 여수를 지방 소도시에서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이제 그 바통이 경주로 넘어왔다. 천년 고도의 문화유산과 첨단 회의시설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MICE 허브가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88올림픽부터 세계 2위까지, 성장하는 K-MICE

한국의 MICE 산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코엑스, 킨텍스, 벅스코 등 대형 국제전시장이 잇따라 건설되며 하드웨어 기반이 완성됐다. 여기에 국제회의기획사(PCO) 제도가 정착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도 함께 성장했다.

그 결과는 놀랍다. 국제협회연합(UIA)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6·2017년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세계 2~3위를 유지하며 미국·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MICE 강국'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MICE 산업의 진화 방향이다. 단순한 회의 개최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접목한 '미래형 MICE'로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하이브리드 회의, 메타버스 전시, 탄소중립 행사 운영은 이미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MICE가 만드는 다양한 직업들

MICE 산업의 매력은 다양성에 있다. 하나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기획자부터 기술감독, 통역사부터 디자이너까지 수십 개 직종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직종들이다. 메타버스 전시를 기획하는 'VR 콘텐츠 기획자', 친환경 행사를 설계하는 '지속가능성 매니저', 글로벌 참가자들의 실시간 소통을 돕는 'AI 통역 솔루션을 관리·운영하는 전문가(일명 AI 통역 코디네이터)' 등이 그것이다.



MICE 산업 핵심 직업군과 진입 방법

직업군	주요 역할	진입 방법
컨벤션 기획자(PCO)	국제회의·전시 전반 기획·운영	관광·MICE 전공, 국제회의기획사 국가 자격증, 현장 경력
전시·박람회 디자이너	전시 부스·공간 연출, 브랜드 홍보	디자인 전공,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CAD·3D Max·Rhino 등) 활용
통역·번역 전문가	국제회의 동시통역·문서 번역	어학 능력, MICE 통번역 전문 교육 과정
이벤트 기술 감독	음향·영상·조명·무대 관리	방송·무대 기술 경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MICE 관광 가이드	대표단 전용 관광·문화 체험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 지역문화 이해
ESG·지속가능성 매니저	친환경 회의·탄소중립 운영 관리	환경·지속가능경영 관련 학위, 국제기구·기업 경험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MICE 진출 로드맵

MICE 업계 진출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관광·MICE 전공자에게만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정통 코스는 대학·전문대학의 관광학과나 MICE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국제회의기획사(PCO)나 전시전문기업(PEO)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국제회의기획사 자격증, 관광통역 안내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융합형 진입도 가능하다. IT 전문가는 하이브리드 회의 기술 분야로, 디자이너는 전시 공간 연출 분야로, 환경 전문가는 ESG 행사 기획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제대군인이나 경력 전환자에게는 체계적인 조직 운영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이 큰 장점이 된다.



MICE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한국관광공사(KTO)
관광전문인력 포털을 통해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 글로벌 전문가, 운영요원, 재직자 교육 등 상시 제공



한국MICE협회(KMA)
온라인 MICE 연수원에서 AI·디지털 마케팅, 인센티브 관광, 현장안전, 통역 등 직무별 교육을 연중 상시 개설



서울관광재단(STO)
‘서울 MICE 글로벌 전문가(서포터즈)’ 연 2회 정례 모집, 기본/심화 교육 후 국제행사 운영 실습 참여



대전관광공사(DJTO)
‘대전 MICE 크루’, ‘MICE 아카데미’, 액셀러레이팅 등 지역 청년 대상 현장 교육·멘토링·실습 운영



부산관광공사(BTO)
‘Young MICE단’(상시 활동), ‘커리어 점프업 아카데미’(취업 연계 교육) 운영, 현장 체험·멘토링 포함

경주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기회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교통 인프라가 정비되며, 수천 명의 정상단·수행단·기자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임시직이 아니다. 국제회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인력들은 경주를 거점으로 동남권 MICE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글로벌 무대를 경험할 기회가, 경력 전환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년 고도 경주가 ‘미래 MICE 도시’로 도약하는 순간, 그 중심에는 새로운 꿈을 품은 MICE 전문가들이 서 있을 것이다. 



연령대별로 챙겨야 할 경제교육 포인트

글 성유미

Q

“경제교육은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이에게는 용돈 관리부터, 어른에게는 소비 습관과 재테크까지... 나이에 맞는 경제교육은 어떻게 시작하고 이어가야 할까요?”

A

많은 분들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 막막하게 느껴지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걸요. 아이에게 동전 하나를 쥐어 주는 것부터, 어른들이 월급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까지 모두 경제 공부랍니다. 그중에서 성장 단계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이가 직접 물건을 고르는 경험



용돈을 쪼개어 관리하기

미취학 시기 - 돈은 경험으로 익히는 것

이 시기에는 직접적인 돈의 사용법보다는 돈의 개념을 인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지요. 마트 계산대에서 돈을 직접 내보게 하거나, 은행에 갈 때 데리고 가세요. 옆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돈이 물건과 교환되는 도구이며, 저금통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초등 시기 - 용돈으로 돈 관리 습관 기르기

친구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용돈 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용돈을 주고, 간단히 기록하게 하세요. 처음엔 “아이스크림 1,000원”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비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연습도 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는 돈을 ‘쓰는 재미’뿐 아니라 ‘관리하는 힘’도 배우게 됩니다.

중등 시기 - 욕구와 욕심의 균형 잡기

사춘기에는 소비 욕구가 커지고, 때로는 돈에 집착하거나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장의 한 과정이에요. “왜 그게 필요하니?”, “꼭 지금 사야 할까?”라고 물어보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도와주세요. 꼭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스스로 저축을 통해 목표를 이뤄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한창 독립심이 자라날 시기, 의사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고등 시기 - 미래 설계와 금융 감각 기르기

빠른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독립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 근로기준법 등 사회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간단한 법률 상식을 익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 자격증 비용, 여행 경비 등을 스스로 계산해 보며 현실 경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의투자나 경제 기사 읽기 같은 활동도 금융에 대한 ‘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인 시기 - 습관 점검과 재무 설계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 자칫하면 낭비의 길로 들어서기 쉽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써 보며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비상금·저축·투자·보험으로 나눠 관리하면 좋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종잣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나누어 관리하고, 경험과 배움에도 일부를 투자하세요. 중요한 건 ‘돈을 빠르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태도와 습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된 우리는 늦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 이후 또 다른 출발선에 서 계신 지금이 경제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제 공부의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

글쓴이 소개 **성유미** | 온 가족 경제교육 커뮤니티 ‘깨비드림’ 대표
저서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르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경제교육>
KBS2 <생생정보>, SBS <뉴스토리>, EBS <돈워리 라이프> 등 출연
기획재정부, 신한증권, KB은행 등 콘텐츠 협업
교육청, 도서관, 학교 등 학부모 교육 다수 출강

한글날 제정

글 편집실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존 지식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41번 문항

4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 ②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 ③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 ④ 조선말(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 ⑤ 국문 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가가날의 시작, 한글날의 뿌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해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조선시대 내내 '언문'이라 불리며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와 1894년 고종의 「국문 칙령」 선포를 거치며 서서히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자 국어 학자들과 지식인들은 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곧 민족혼을 지키는 길이라 믿고 우리말 연구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1921년 12월 창립된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입니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는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해 11월 4일(음력 9월 29일)을 '가가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가, 가, 거, 거' 식으로 한글을 배우는 방식에서 유래했으며, 이날 '한글'이라는 명칭도 처음 제안됐습니다. 1928년 '가가날'은 '한글날'로 바뀌었고, 1934년부터는 음력 9월 29일을 양력 10월 28일로 환산해 기념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을 근거로 음력 9월 10일을 양력 10월 9일로 정해 오늘날의 한글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답] ④번

문제의 (가) 단체는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는 1921년 '조선어연구회'로 창립해 1931년 개칭했으며, 1929년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를 발족해 『큰사전』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발간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을 근거로 한글날을 10월 9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지영, 이윤재, 최현배, 이희승, 김법린, 한징 등 한글학자가 중심이 돼 활동했던 조선어학회
(출처: 한글학회)



조선말 큰사전 원고(보물 제2086호)
(출처: 독립기념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마련에 기여한 장지영, 김윤경, 권덕규 선생 (출처: 국가보훈부)

조선어사전편찬회와 큰사전의 꿈

1929년 한글날 기념식에서는 조선어연구회를 중심으로 김두봉, 방정환, 백낙준, 변영로, 염상섭, 윤치호 등 사회 각계 108인이 참여해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의 기초는 언어이며, 언어를 정리하고 통일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선언하고, 사전 편찬을 민족운동의 대사업으로 삼았습니다.

1936년에는 편찬회가 조선어학회로 통합되면서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방대한 어휘를 수집했고, 동시에 조선어학회가 추진한 첫 사업은 맞춤법 통일이었습니다. 권덕규, 김윤경, 장지영, 이극로, 이윤재, 최현배 등 18인의 제정위원들이 3년에 걸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1933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뒤, 한글날에 반포되었습니다.

이어 1936년에는 「표준말 모음」, 1941년에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공표되며, 우리말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 사업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언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과 원고의 기적

그러나 1942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탄압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조선어학회 회원 정태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족주의 활동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큰사전』 원고에 실린 ‘태극기, 단군, 백두산’ 같은 단어와 취지서 속 ‘독립’이라는

표현이 불온한 증거로 몰리며 학회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회원들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 20여 년간 모은 『큰사전』 원고 또한 행방불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세가 불리해지고 행정이 혼란해지면서 원고는 압수되지 않았고, 1945년 10월 2일 서울역 조선운송주식회사 창고에서 기적처럼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 원고가 사라졌다면 우리말의 집대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말과 얼을 지킨 『큰사전』의 완간

광복 이후 조선어학회는 다시 사전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1947년 10월 9일 한글날, 마침내 『조선말 큰사전』 제1권이 간행되었고, 이어 제2권(1949), 제3권(1950, 이때부터 『큰사전』으로 명칭 변경)이 나왔습니다. 전쟁과 혼란으로 지연되었지만, 1957년 제4·5·6권이 발간되며 총 6권이 완간되었습니다. 발족에서 완간까지 28년, 본격 집필 이후 21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큰사전』은 일상어부터 전문어, 고유명사, 방언, 옛말까지 아우른 종합 사전으로, 모두 16만 4,125개의 단어를 수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민족의 말과 얼을 지켜낸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글을 목숨처럼 지켜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지켜낸 언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㉞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들, 웹툰 작가의 세계

글 편집실



사진 출처: SBS 드라마 <오늘의 웹툰>

드라마 <오늘의 웹툰>과 영화 <히트맨> 속 '웹툰 작가'



사진 출처: 영화 <히트맨>

웹툰은 더 이상 단순한 만화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시작된 상상력은 드라마와 영화, 나아가 게임과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다. SBS 드라마 <오늘의 웹툰>과 영화 <히트맨>은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서로 다른 색채로 담아내며, 치열한 현실과 유쾌한 상상이 교차하는 세계를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작품 속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 웹툰 작가의 고군분투와 열정, 그리고 K-웹툰 산업이 지닌 가능성까지 새롭게 보인다.

치열한 현실을 그리다- 드라마 <오늘의 웹툰>

드라마 <오늘의 웹툰>은 일본 드라마 <중쇄를 찍자>를 원작으로, 한국 웹툰 업계의 리얼리티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전직 유도 선수였던 온마음(김세정 분)은 운동을 그만두고 웹툰 편집부의 막내 PD로 입사해 매일같이 마감 전쟁을 치른다. 작가와의 갈등 조율, 독자 반응 관리, 신인 발굴 등 '편집부'의 일상은 치열하면서도 생생하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주목하는 건 단순한 업계 풍경을 넘어선다. 먼저, '그림자 아티스트'라 불리는 편집자들의 세계다. 드러나지 않지만 작가 옆에서 작품을 빛내는 편집자의 역할을 통해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예술가들의 헌신을 보여준다. 동시에 신입사원 온마음의 분투기를 따라가며

첫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시행착오와 성장을 오피스 드라마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또한 드라마는 웹툰 작가 지망생들의 현실도 담아낸다. 수년간 문하생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들, 자기 확신만으로 버티는 천재 지망생까지. 꿈과 현실의 갈림길에 선 청춘들의 고민과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의 자화상과도 겹쳐진다.

<오늘의 웹툰>은 무명에서 스타로 도약하는 작가들의 땀과 열정을 비추는 동시에, 업계의 애환과 희망을 균형 있게 보여준다. "웹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처럼, 이 드라마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청춘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건넨다.

상상과 현실을 넘나들다- 영화 <히트맨>

영화 <히트맨> 시리즈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색다르게 풀어낸 코믹 액션물이다. 전직 국정원 암살요원에서 웹툰 작가로 전직한 준(권상우 분)은 평범한 일상과 과거의 그림자 사이를 오가며 유쾌한 소동을 벌인다. 1편에서는 술김에 비밀 요원 시절을 웹툰으로 그리면서 정체가 드러나고,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추격을 동시에 받게 된다. 2편에서는 새 웹툰을 선보이자마자 '뇌절 작가(스토리가 산으로 간 작가라는 뜻의 신조어)'로 전락한 데 이어, 작품을 모방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린다.

흥미로운 점은 두 편 모두에서 웃음과 액션의 중심에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점이다. 영화 속 웹툰 작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매주 마감과 독자 반응에 시달리며 스토리와 캐릭터를 창조하고, 때로는 생활고와 비난 속에서도 곳곳이 펜을 잡아야 한다. 현실의 웹툰 작가들이 겪는 치열한 노동과 압박이 과장되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히트맨>은 결국 웃음과 액션을 넘어, '웹툰 작가'란 어떤 직업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작가의 세계는 때로는 고독하고 고단하지만,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닌다. 이 영화가 유쾌하게 풀어낸 상상력은, 곧 웹툰이라는 직업이 가진 무게와 가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 웹툰,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 웹툰은 단순한 만화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 K-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비결은 모바일 친화성이다. 세로 스크롤 방식은 언제 어디서든 읽기 쉽고,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어 '스낵 컬처(snack culture)'와 맞닿아 있다. 또한 장르 다양성은 로맨스, 스릴러, 판타지, 공포까지 아우르며, 독자의 취향을 세분화해 충족시킨다. 참신한 캐릭터와 설정은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는다. 웹툰은 드라마·영화·게임 등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IP 확장성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넓힌다.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나 국내외 흥행작 상당수가 웹툰 원작이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웹툰은 한국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고 있다.

웹툰 산업의 수익 모델도 혁신적이다. 보통 첫 화는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모델을 도입하여 일정 시간 후엔 무료로 보게 하거나, 바로 보길 원하면 소액 결제를 유도한다. 작품 내 배너 광고나 PPL, 캐릭터 상품(굿즈) 판매, 영상화 판권 수익까지 다층적인 구조를 갖추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은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면서 독자는 부담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SBS 드라마 <오늘의 웹툰>

인기에서 성장으로, K-웹툰의 도약

이러한 강점들은 곧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한국 웹툰 산업은 2019년 6,400억 원에서 2023년 2조 1,89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세 배 이상 커졌다. 수출 역시 일본(40.3%),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12.3%) 등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있다.

전 세계 웹툰 시장도 2023년 약 82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450억 달러(약 60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외에서만 수 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K-웹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연도	시장 규모(원)	비고
2019	6,400억	시장 본격 성장 시작
2020	1조 538억	첫 1조 원대 돌파
2021	1조 5,660억	IP 확장 가속
2022	1조 8,290억	해외 진출 확대
2023	2조 1,890억	수출·플랫폼 매출 급등



SBS 드라마 <오늘의 웹툰>

K-웹툰 시대, 작가로서는 법

스마트폰을 스크롤 하는 순간 펼쳐지는 한 컷 한 컷은 누군가의 땀과 열정의 산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웹툰 작가를 꿈꾸며 원고를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웹툰 작가가 되는 길은 어떻게 열릴까. 웹툰 작가의 출발점은 두 가지다. 그림 실력과 스토리 구성 능력이다. 최근에는 작화와 스토리를 분업하는 경우도 많아, 그림에 강점이 있다면 스토리 작가와 협업할 수 있고, 반대로 서사에 강하다면 스토리 작가로 데뷔할 수 있다.

데뷔를 위해서는 완결된 단편이나 시범 연재작(파일럿)을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온라인 공모전이나 신인 발굴 프로그램, 혹은 '도전만화'와 같은 오픈 공간을 운영한다. 이곳에 작품을 올려 독자 반응을 얻거나, 담당 PD의 눈에 띄는 것이 첫 관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등 주요 플랫폼은 매년 신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정식 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경로는 플랫폼 내 도전만화나 블로그, 브런치 형식을 통해 자율 연재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와 좋아요를 많이 얻는 인기작이 되면, 편집 담당자가 정식 연재를 제안하는 사례도 많다. 정식 연재가 확정되면 작가는 담당 PD, 채색 어시스턴트, 배경 어시스트 등 팀을 꾸려 작업하게 된다. 마감은 보통 주 단위로 돌아가며, 매주 일정한 분량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체력과 멘털을 동시에 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학과 교육과 정부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훈련 경로도 마련되어 있다. 국내 여러 대학에 만화·웹툰 관련 학과가 생겨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각 지역의 웹툰캠퍼스·창작지원센터 등에서는 스토리 기획, 디지털 작화 툴 사용, 저작권 관리 등을 가르치고 실제 데뷔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



※ 웹툰작가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웹툰작가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영화 <히트맨>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

드라마 <오늘의 웹툰>이 현실의 무게를, 영화 <히트맨>이 웃음과 상상을 보여주었듯, 웹툰 작가는 현실과 환상을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다. 그들의 작품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영화·드라마·게임으로 확장된다.

무대는 달라져도 본질은 같다.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바로 웹툰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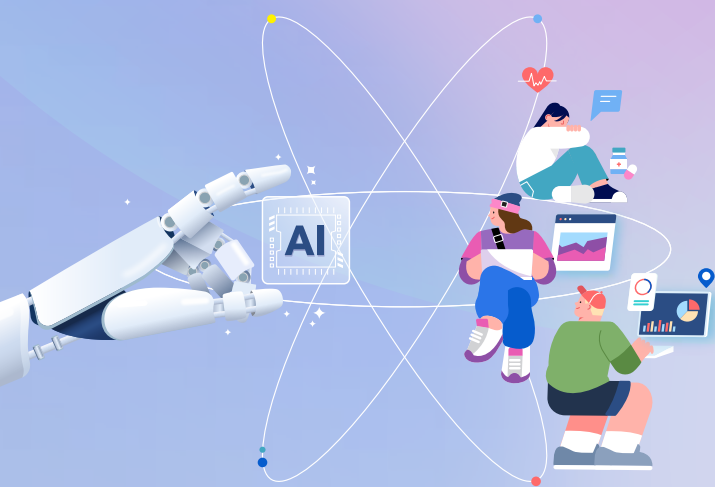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웹툰 시장은 불과 몇 년 만에 수조 원대로 확대되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K-웹툰은 '이야기를 그리는 힘'으로 각광받는다. 이는 곧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웹툰 작가의 길은 단순한 재능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기초 훈련과 꾸준한 작업, 독자와의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창작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매주 수많은 독자를 붙잡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림이다. 당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분명한 자기만의 이야기와 그림이 있을 때, 새로운 웹툰 작가가 탄생하고 K-웹툰은 다시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A.I의 시대 자기다움 찾기 — 오리지널리티

아침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플레이 리스트’를 재생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너무 좋은 곡이 들려서 멈추고 제목과 가수를 찾아봤다. 없다. AI가 작곡한 노래였다. 어떤 외국인이 할머니에게 영어 표현을 알려주는 짧은 영상을 봤다. ‘오 콘셉트 좋은데~’ 하면서 다시 돌려봤다. 뭔가 좀 어색하다 싶었다. 역시나. AI로 만든 영상이었다. 챗 GPT와 함께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점점 AI가 만든 콘텐츠들로 덮여가고 있다.

글 이임복



2025년 8월 초 ‘나노 바나나’라는 이름의 이미지 생성 AI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생성형 AI들에게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던 ‘기존 첨부한 이미지에서 일부 내용만 바꾸는 - 일관성’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이 모델을 만들었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했고 1주일도 지나 알게 됐다. 구글이었다. 이제는 누구나 구글의 AI ‘제미니’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모델을 합성하거나 유명인들의 모습을 합성할 수 있게 됐다.(그것도 무료로!) 예를 들어 ‘빌게이츠와 셀카 찍은 모습’이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합성 사진을 만들어준다. 나 역시 이 기능이 소개되자마자 만들어봤다. 무서울 정도였다. 너무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울수록 두려움 역시 커졌다.

‘미래도 괜찮은걸까?’

물론 괜찮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이 기능은 차단되어 더 이상 유명인의 모습은 합성할 수 없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게’ 해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사이버 세상 속에선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버렸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사전 질문을 받고 여러 번 고민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창의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나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2016년 알파고 이후 잠시.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갈수록 결국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이란 기존의 케케묵은 고정관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짝 다르게 들추어 보는 것.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걸 창의성이라 배웠다. 그런데 AI가 그리는 그림과 AI가 쓰는 글 역시 대단히 창의적이다. 더 이상 창의성은 인간만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해 ‘비효율적인 어려운 일, 의심과 질문’이라 답했다. 택배 기사님들의 일과 이삿짐 센터의 일들을 생각해 보자. 구석구석 도시의 곳곳을 찾아가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들다. 이 일을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가 대신할 수 있을까? 언젠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한글 문서로 된 표’는 어떤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생성형 AI들은 감히 ‘표 기능’으로 조직도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인간의 최소한의 직업을 지켜나가고 있다.

‘의심과 질문’은 어떨까. 이거다. 이것만큼은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쉽게 믿지 않는 것.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해도 일단 의심하고 질문해 보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믿지 못함이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왠지 서글프다.

AI를 활용해서 굿즈와 MD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괜찮나요?

강의가 끝난 후 이런 질문을 받았다. 2-3년 넘게 해당 일을 하던 디자이너분이 던진 질문이었다. 직접 고민하면서 수없이 스케치하고 지워가며 했던 일들이 생성형 AI를 쓰니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바뀌었다. 당연히 업무 성과는 늘어났고 보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괜찮은건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나는 괜찮다고 답변드렸다. 이유는 하나다. 한번도 그 일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건 그만큼 해왔던 경험에 있으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AI라는 도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평준화되었다 해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기초 조건은 ‘경험’이다. 경험이 바탕되어야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바꾸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던져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아쉽고 걱정된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명쾌하게 답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 하지만 2016년 알파고 이후 같은 질문에 답했던 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니 무엇이든 어떻게든 할 수 있게 ‘기본기’를 익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기는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기초 과정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생각하기. 지금은 수많은 읽을거리들이 넘쳐나지만 점점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적다. 수많은 게시판과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지만 제대로 1장의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읽기와 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말하기가 되지 않는다. 이 셋 모두는 ‘제대로 생각하기’에서 시작된다. ‘생각하기’는 ‘질문’이다. 이걸 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의심하고 방향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파우스트)에서도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향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키워야 한다. 무작정 AI에게 글쓰기를 맡기기 전에 비문이라도 어설프더라도 자신만의 글을 써봐야. 자신의 ‘문체’가 생긴다. 이렇듯 어떤 일을 AI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AI는 도구다. 도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히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글은 100% 직접 썼다.

글쓴이 소개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박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천년 고도를 걷다

경북 경주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2025년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천년 고도의 역사 도시가 국제회의의 무대가 되는 순간, 여행자는 특별한 설렘으로 이 도시를 찾게 된다.
가을빛으로 물든 옛 신라의 도읍은 오래된 왕릉과 별궁, 그리고 감각적인 거리 풍경까지,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빛어낸 풍경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대릉원



첨성대

고요한 시간 속을 걷다

대릉원과 첨성대

첫 발걸음은 대릉원에서 시작된다. 고분군 사이로 난 길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걷는 이의 마음에도 계절의 향을 입힌다. 천마총, 황남대총 같은 거대한 봉분은 신라왕과 귀족들의 이야기를 고요히 품고 있다. 무덤 속에서 출토된 금관과 유물들은 과거의 영광을 증언하며, 동시에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특히 고분 사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여행자들의 모습은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곧이어 마주하는 첨성대는 낮에는 담백하고, 밤이면 별빛과 조명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풍경을 만든다. 7세기 선덕여왕 때 세워진 이 천문대 앞에 서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읽던 옛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돌탑의 질감과 주변 들판의 고즈넉함이 함께 어울려, 이곳은 '시간 여행의 출발점'이 된다.

감성과 활기를 만나다

황리단길과 금리단길

황리단길은 신라 천 년의 심장부, 대릉원과 첨성대 인근에 자리한 골목이다. 오랫동안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은커녕 낡은 한옥들만 있었지만, 대릉원과 가깝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몇몇 상인들이 2015년 말부터 빈집과 한옥을 리모델링해 카페·식당·공방을 열면서 젊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름은 서울의 '경리단길'을 본떠 붙여졌는데, 황리단길이라는 명칭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인기를 얻게 됐다. 이제는 돌담과 고분을 배경으로 늘어선 골목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거리로 자리 잡으며 경주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추억의 간식을 재해석한 '황리단길표 쏘면'을 사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거니는 재미도 여행의 묘미다.

바로 인접한 금리단길은 아직도 생활의 냄새가 묻어 있는 골목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소규모 공방, 전통주점, 로컬 상점이 모여 있어 관광지보다는 동네의 생생한 분위기를 간직한다. 이곳은 신라시대 황룡사와 분황사 등 중심 사찰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해,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다. 황리단길이 세련된 감성을 담았다면, 금리단길은 주민의 삶과 역사가 녹아든 생활형 거리라 할 수 있다.

두 골목을 거닐다 보면, 신라 고도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며 한옥 지붕 밑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방에서 만든 소품을 손에 짚 수 있다. 과거 천 년 도읍의 자취 위에 오늘의 일상이 겹쳐지는 경험은 경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황리단길



금리단길

빛으로 물드는 호수와 다리

동궁과 월지 & 월정교

해가 저물 무렵, 여행의 발걸음은 월정교로 향한다. 붉은 빛이 강물 위로 스며들던 다리는 해가 지며 은은한 불빛을 입는다. 어스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목조 교량의 곡선은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은 짙어지고, 월정교는 더욱 환히 빛나 천년 고도의 밤 풍경을 품어낸다. 특히 교각 앞 징검다리에 서면, 물 위에 반사된 월정교의 전경이 한눈에 담겨 여행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다리 위에서는 달빛이 강물에 흩어지고 발아래 은빛 물결이 흐르며, 그 순간 여행자는 '시간을 건너는 나그네'가 된다.

깊은 어둠이 깔린 밤, 동궁과 월지에 이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낮의 고요한 연못은 사라지고, 조명에 비친 전각과 물결은 빛의 공전처럼 변모한다. 문무왕 14년(674)에 조성된 이곳은 왕자가 거처하며 연회를 열던 별궁이었다. 신라 멸망 후 '안압지'라 불렸으나, 발굴에서 '월지(달이 비치는 연못)'라는 토기 파편이 발견되며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지금은 깜깜한 밤의 고궁을 거닐며, 연못에 비친 전각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감각이 스민다. 국내외 여행객들이 낮보다 밤에 더 몰려드는 이유도, 바로 이 몽환적 아름다움에 있다. 66



월정교



동궁과 월지

Tip. 여정의 정보

대릉원

주소 경북 경주시 황남동 31-1
운영 연중무휴 / 무료(천마총은 유료)

첨성대

주소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운영 연중무휴 / 무료

월정교

주소 경북 경주시 교동 274
운영 연중무휴 / 무료

동궁과 월지

주소 경북 경주시 원화로 102
운영 연중무휴, 입장료(성인 3,000원 /
군인·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000원)

수도권 심장에서 제대군인의 내일을 설계하다

글 박선경 사진 박진형

경기남부 제대군인 지원센터

경기도의 행정·경제 중심지 수원에 자리한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이곳은 2014년 개소 이후 제대군인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해 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제대군인들의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센터와 제대군인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전국 최다 회원 수라는 숫자로도, 성공적인 사회 정착이라는 결실로도 증명되고 있다.



Q.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4년 7월 첫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시작했으나, 보훈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경기남부 보훈지청 별관 2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 선임상담사 2명, 전문상담사 4명, 일반상담사 4명, 군경력상담사 1명, 행정직원 2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교육팀, 행정팀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1만 7천여 명의 제대군인이 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온라인 면접실, 회의실, 휴게실 등 실전 환경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어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3층 대회의실에서는 각종 워크숍과 집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센터는 전직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상담팀은 1:1 상담을 통해 진로 탐색, 입사지원서 클리닉, 모의면접, 전직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교육비 활용까지 꼼꼼히 지원합니다. 기업협력팀은 관내 17개 시 기업체와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제대군인 맞춤 일자리를 발굴하고, 각종 채용 박람회에서 센터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교육팀은 군부대 순회상담, 위탁교육과정, 취업 워크숍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집중지역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큼니다. 수원, 용인, 화성 등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3곳을 포함해 총 17개 시를 관할하며, 제대군인 회원 수만 1만 7,253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회원 수의 15% 이상으로, 전국 센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취업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중소기업의 26%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520개 협력기업을 지정해 안정적인 취업 네트워크를 구

축했습니다.

산업환경도 다양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수도권 산업 구조는 물론 반도체, IT기업, 대기업, 미군기지까지 다채로운 분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교육비 지원, 연령별·대상별 취업워크숍 등 기업 맞춤형 취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Q.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창업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50대 중반에 전역한 육군·공군 준위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항공조종, 정보통신 등 전문 병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셨지만, 전역 후에는 기존 병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센터는 시설관리직 취업에 유리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권유하고, 교육비 지원과 워크숍 참여를 통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세 분 모두 공공기관 시설관리직에 초기 입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한 분은 관리과장으로 승진했고, 나머지 두 분은 정년퇴직 후에도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지금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의 의지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Q.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A. 센터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상담부터 교육지원까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역 후 기간과 연령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역 6개월 이내 청년층의 경우 전직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활용한 직무 역량 개발에 집중하며 성공적인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역 3년 이내 중장년층은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맞춤형 취업 상담을 통해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능력 개발교육비 지원과 함께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단계별 취업 지원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위탁교육, 취업 워크숍, 순회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모든 제대군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올해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올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대군인 체

용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와 같은 대형 행사에 참여해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구직 제대군인과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특례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며, 일자리두드림 행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제대군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Q.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센터는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든든한 지원기관입니다. 군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사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희는 취업·창업·교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로 동반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상담에



서 고민을 솔직히 나누고 교육에 꾸준히 참여할 때 효과가 커집니다. 저희 상담사들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돕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무엇보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문을 두드리세요. 혼자 고민하기보다 조기 상담을 통해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사회 적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같은 경험을 한 제대군인들과의 교류도 새로운 용기와 정보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언제나 편히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2층

운영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1666-9279(군인친구)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 지원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오정훈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저는 지난해 1월 22일 자로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건설·농정·자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보훈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지방보훈청을 도에서 운영하고, 제대군인 지원은 부산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실무진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안정적 운영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 노후를 배워 향후 제주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 개인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할 17개 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경기도 5070일자리박람회·수원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업 간담회,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등을 통해 제대군인과 기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채용 분위기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풍성한 수확의 계절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책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 | 사이언스북스

빌 게이츠가 방송에 출연해 “내 평생 읽은 책 중 가장 중요한 책”이라며 추천한 책이다. 우리 안에 공존하는 ‘천사’와 ‘악마’, 인류는 어떻게 내면의 선한 천사들로 악한 본성들을 억누르고 점차 덜 폭력적인 세계, 점차 더 인도적인 세상을 진화시켜 왔는지 방대한 데이터로 증명한다.



오십, 인생의 재발견

구자복 | 더 퀘스트

40대 중반, 갑작스레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좌절하다 뒤늦게 심리학 공부라는 새로운 길을 찾은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집중하며 새로움에 대한 기본 좋은 흥분을 느끼는, 인생의 재발견 기회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해인 | 필름

저자가 직접 경험한 ‘다정함’의 진정성과 그 힘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다정함을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정의하며, 그것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이야기한다.

한 달에 한 가지, 수확의 계절 가까운 밭에서 지구를 지키자

수확의 계절 10월, 우리가 선택하는 먹거리가 곧 지구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것, 아시나요? 로컬푸드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판매되는 농산물로, 유통 단계와 운송 거리가 짧아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반면,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수입 농산물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내뿜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산 콩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탄소는 13g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콩을 운반할 때 나오는 탄소는 463g에 달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선택하는 일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동시에 제철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고,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밭에서 난 제철 먹거리를 고르는 작은 선택,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독자퀴즈

QUIZ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26년 처음 ‘가갸날’로 시작해, 오늘날 10월 9일로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일까요? (26~27P 지식산책 참고)

- ① 개천절 ② 한글날
- ③ 광복절 ④ 제헌절

※ 10월 20일(월)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9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만복(대전 동구) 김영주(충남 계룡)
박용철(경남 거제) 유고은(경기 양주)
이상봉(부산 북구)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9월호 정답: ③ 한국광복군

2025년 10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한주섭 대한민국 해병 중령



1932. 2. 1.~1987. 5. 1.

백병전으로 고지를 탈환한 장단지구의 영웅

한주섭 중령은 해병 간부후보생 제8기 과정을 마치고 1951년 7월 소위로 임관하였다. 당시 휴전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공군과의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으며, 특히 37전초진지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되었다. 1952년 10월, 한주섭 중령(당시 계급: 소위)은 아군의 포격 지원을 받으며 대원들을 독려해 백병전으로 다수의 적을 제압하고 37전초진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한주섭 중령은 중공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함으로써 수도 서울 방어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주섭 중령의 발자취

1951년 7월 해병 간부후보생 제8기 수료 후 소위 임관
1952년 10월 장단·사천강지구 전투 참전
1953년 1월 을지무공훈장 수훈
1973년 3월 중령 예편
1987년 5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